

전남대병원,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 조치

본원 신경외과·감염내과 병동 의료진·환자 격리 '의료 공백 최소화' 인력 21명 배치...추가지원 요청 입원환자 전원 추진...응급실 등지 폐쇄도 하루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일부 병동이 의료진·환자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방역당국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응급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폐쇄도 하루 더 연장한다.

16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본원 신경외과 병동(1동 6층)과 감염내과 병동(1동 11층)이 코호트 격리된다.

또 1동 1·9층 시설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 평가한 뒤 추가 코호트 격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예정됐던 응급실과 외래 진료 시설 등지에 대한 폐쇄 조치도 오는 17일까지 하루 연장한다.

일부 입원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다른 종합병원과 연계해 이송 전원 조치를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 내 일부 병동이 폐쇄 조치됨에 따라 우려되는 의료 공백을 막고자 긴급 인력을 지원한다.

17일부터 간호사 17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 21명이 전남대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추가 투입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진 확충이 속출, 인력이 부족한 신경외과에 의사 2명 추가 투입을 요청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16명도 지원



원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신경외과 전문의(광주 546번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는 546번 환자의 지인인 민간병원 의사를 포함해 4명이다. 간호사는 2명, 방사선사 1명이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각각 2명이 고, 병원 내 입주 금융기관 직원과 지인 등 3명도 확진으로 판명됐다.

시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 의료인·종사자·환자 등 477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양성 환자를 제외하고 321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543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6명이다.

“또 대출하면 불법이에요” 보이스포싱 잇따라

동종 수법에 속은 피해자 돈 가로챈 수금책 2명 구속

금융·수사기관을 사칭,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위협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45분께 광주 서구 차평동 한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180만원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보이스포싱 일당은 저축은행을 사칭,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위협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다 금융기관에 대출금 1180만 원이 남아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대출을 추가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직원

으로 가장해 피해금을 가로챈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보이스포싱 피해금을 거둬 총책에게 보내는 범행을 하다가 수감됐으며, 최근 가석방돼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금융 거래내역 조회와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포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21)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 광산구 한 병원 앞에서 보이스포싱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통신 추적이 어려운 보안 강화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포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이스포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에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이날 11일에 대출금 상환 명목의 951만 원을 보이스포싱 일당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하루 사이에 거둬 돈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춘천·부산 등지에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알선하는 수법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잊지도 않은 범행을 들먹이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다”면서 “금융기관은 대출금·보증금을 직접 만나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광주서 초등생 2명 확진 “800여명 전수조사중”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초등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북구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남매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해당 학교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시작했다.

또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 학교의 수업 방식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광주에서는 이날에만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봉우기자

‘도둑 아냐?’ 이웃에 흥기 위협 40대 입건

이웃을 도둑으로 착각해 흥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이웃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이웃에 사는 모자(母子)를 흥기로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현관 앞에 둔 쌀 포대가 사라진 것을 발견, 주변을 살피던 중 때마침 다가오는 이웃을 도둑으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찾고 있던 쌀 포대는 그의 가족이 집 안으로 들여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순천시 차량 5중 추돌, 10여명 부상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로에서 15일 오후 6시 40분께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대형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순천IC 방향으로 향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반대편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5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순천소방서 119구조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사고 충격으로 다친 운전자와 탑승자 10여 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순천경찰서는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마스크 왜 안 써’ 생면부지 손님 모욕한 부부 벌금형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손님을 모욕한 중년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그의 아내 B(55)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 35분께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미가 되가지고 자식새끼 데리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왔네. 네가 사람이나. 저것들이 코로나 병균 다 옮기고 다닌다. 출입 금지 시키야지 뭐하는 거야라며 비상식적인 언사와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이용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날 때려?”...술마시다 친구 흥기로 찌른 60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흥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 B(60)씨의 배와 얼굴을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친구가 자신의 목을 때리자 화기에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